

사설

정교분리의 참뜻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정치적인 일에 대하여 종교는 개입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인가? 이런 해석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잘못된 정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현실을 눈감고 귀막아 외면하며 거짓 초탈을 가르치는 종교로 불교를 전락시킬 뿐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여 현실의 정치적인 문제에 너무나 깊숙히, 또 사사건건 개입한다는 것은 지나친 세속화로 말미암은 종교적 권위의 실추를 낳을 우려가 있으며, 세속 권력과의 아합으로 인한 타락을 낳을 우려도 있다.

우선 정교분리의 원칙이라는 것은 종교가 특정한 권력 내지는 정치집단과 아합해서는 안된다는 말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가 현실의 문제를 눈감아 외면해서는 안되며, 당연히 잘못된 정치 현실을 바꾸어 보다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정치 현실에 가장 초연할 수 있는 종교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종교적 이념을 거울로 하여 잘못된 정치현실의 잘못을 바로잡는 구체적 움직임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총선 불교연대에서 실시한 교계지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불자들의

의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정적 인사는 불교인이라도 찍지 않겠다는 많은 응답(52.1%)은 불교계 정치적 의식의 성숙도를 말해주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불교계의 독자적인 낙선명단 발표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률(57.5%)은 아직까지 불교가 현실 정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준비를 갖추지 못하는데 대한 우려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우선은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나는 정치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지향하는 의식을 정치에 대한 불교의 기본 자세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를 바탕으로 불교적 이념을 통해 정치현실을 올바르게 비판하고 보다 나은 정치 현실을 이룰 수 있는 원칙들을 제시하며,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제도과 기구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현실 정치의 문제들을 검토해야 한다.

현실을 바꾸어 나가는 불교로 서야 한다는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 문제는 얼마나 엄정하고도 객관적인 선을 지키면서 이러한 운동을 이끌어 내는가의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는 식의 자세를 버리고 범 종단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현실 정치를 살피는 제도과 기구를 설립하여 불자들의 정치의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동국대 불교대학의 과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은 2500여년의 불교 역사와 1600여년이라는 한국 불교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94년이라는 설립의 연륜을 갖고 있는 한국 불교학의 메카로서 제 역할을 다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긴 역사 속에서 자리매김해온 불교대학이 국가의 교육개혁정책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존재의 위기에 표류하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동국대학교에서만 불교학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만으로 안주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더욱이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연세대·고려대 등 문학·역사·철학을 하는 지방대학에서까지 불교학 연구의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불교대학의 체제 정비는 더욱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행히 지난 2월 24일 불교대학발전연구위원회가 발족되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기에 차체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 종합학교로서의 위상 정립이다. 불교대학에서는 그 동안 출가자

와 재가자가 함께 공부하여 교계의 많은 인재를 양성해왔지만, 종단 발전에 기여한 인적수급의 역할은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다. 즉, 교단에 꼭 필요한 성직자로서의 역할과 중무역으로써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교육적 지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교과과정 자체의 개선점이 요구된다.

둘째, 교역자로서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지원자의 성향이 중요시되어야 한다. 단순히 졸업장이나 따기 위해 입학이나 하고 보자는 식의 학생은 절대 받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입시 전형이 예·체능계처럼 특수해야 하고, 교육과정이 분명해야 한다.

셋째, 교수들의 폭넓은 대내·외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우수한 교수들을 확보해야 한다. 그 동안 불교대학에는 전공 불명의 교수, 학문적 체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감안한다면 이 문제는 가장 시급한 일이다. 세계의 불교학 내지는 불교의 세계화에 함께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효율적인 대학이 되도록 서둘러서 체제 정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산당화가 2월 하순에 핀다. 1964년이었다. 그곳 친구네 집 뜰에서 그 분홍꽃을 보았을 때 내 취기가 얼른 깨어버리던 것이다.

10여년 동안 살았던 서울의 내 집에 산당화 한 그루가 있어서 그것이 제주도 시절을 이어주었다.

그 뒤 안성생활 20년이 다 된다. 세월이란 오래 과거가 많아져야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다. 안성 집 뜰에도 산당화가 있다. 때때로 그것을 다른 꽃들에 가리어서 있는지 없는지 하고 넘어가기도 했다. 줄기가 여럿이고 줄기마다 사나운 가시를 달고 있어서 거기에 몇번인가 손가락이 찔린 적도 있다.

3월하순 4월상순 사이에 그 꽃은 저녁무렵 요염한 등불인 듯 피어서 서재의 창으로 내다볼 수 있다. 안성은 서울보다 2백리나 남쪽인데도 기운은 낮아서 서울의 진달래 개나리 훨씬 뒤어나 그 꽃들이 피어난다.

나에게 산당화를 바라보는 일과도 관련된 시 한 편이 있다. '창 가에서'라는 것이다.

먼곳이 있다.
가까운 곳이 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고은 칼럼



고은시인의 불교계와 사회에 대한 날카롭고 따뜻한 칼럼을 매월 1회 연재합니다. '고은 칼럼'은 지난 1년여 미국 버클리·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하고 지난 1월말 귀국하면서 이호를 '소봉(小朋)'으로 정한 고은시인의 문학과 불교사상과 삶을 통찰한 글로 깊은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시인·본지논설교문

견디지 못하면 죽음이었습니다
그 추위 견디어 내면
한층 더 강한 삶이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 나비 꿈이 어른거렸습니다

봄 소식이 이렇게 오나싶어서
맨 먼저 부른 꽃망울을 터뜨리니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서로 얼굴 보며 좋아합니다
아 꽃 좀 봐 꽃 좀 봐

하늘도 덩달아 젖빛 손뼉치며 두둥실 내려오니
산당화 두 그루입니다
분홍과 연분홍입니다

이 시에는 내가 뒤늦게 철이 든 것도 들어있는지 모른다. 철이 들었다. 철 없다는 말은 사람의 속사정을 네 계절의 운행으로 비쳐 놓은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나할 것없이 수제 철이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 봄의 꽃을 가을에도 볼 수 있고 5월의 장미도 사시사철의 꽃으로 피어 나가고 있다. 어디 꽃 뿐인가. 봄의 나뭇물도 어디서 재배되는지 한

산당화를 바라보며

가 여기저기 뜰을 거닐어야 했다. 산당화는 그런 나에게 오래 친구가 되어 주었다. 더러 푸대접을 해도 언제나 거기 그대로 서 있는 무표정에 내가 사로잡힐 때도 있다.

몇 해 전에는 가지들이 서로 얽혀서 전지가위로 여러 줄기를 썬어냈다. 당장은 이발한 것처럼 시원하고 다음 해에는 키가 뻗고 웃자라 내 가슴쯤으로 올라왔다.

겨울이 다할 무렵 아직 남은 추위에도 산당화 가지에는 꽃망울들이 총총히 달려있었다. 한편 애처롭기도 하고 한편 대견스럽기도 했다.

그 모진 추위에도 단 한번 꽃을 피우기 위해 이렇게 망울로 그 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나는 산당화 뿐 아니라 진달래 개나리 빛 산수유 살구 등 꽃나무들이 봄에 망울을 맺는 것이 아니라 지난 가을에 이미 맺혀서 긴 겨울을 견디어 내는 사실을 알았다. 꽃망울이 먼저 맺혀 있는 것도 모르고 산 지난날이었으니 내 나이 헛 먹은 것이 아닐 수 없다. 도무지 흐르는 물이 내 골짜기를 두고 다른 곳으로 흘러간 느낌이 안 드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구나. 꽃망울은 지난 가을 모든 일새들을 다 떨구는 것과 함께 맺혀서 그것으로 겨우내 견디어 내며 살아남은 놈들만이 봄맞이 꽃 한 송이로 활짝 피어나는 것이다. 꽃이 핀다는 것이 이토록 큰 수고 뒤에야 세상 천리의 앞뒤가 탁 트여 환하다는 것인가.

그 꽃 한 송이도 쉽사리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세상이 다 헛되다 하나 다시 돌이켜보면 생생불식(生生不滅)으로 헛된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이 새삼스럽다.

그래서 나도 아직 꽃 필 생각을 하지 않는 눈곱만한 망울로 맺혀 있는 것을 알고 나서야 이 세상의, 한 가늠을 제대로 보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시 한 편을 써보았다. 시 '산당화가 그것이다.'

지난 가을 잠자코 꽃망울 맺힌 뒤로
겨우내
모진 추위에

겨울 반찬으로 나오기 일수이다.

이제 세상에 제 철이 필요없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사람의 심상이나 품성 속에도 자리잡아서 사람들의 어떤 경우 도무지 철 들지 않은 행태가 내내 자주 보이는 것이다.

나는 16세기 스승과 제자,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한 인연을 떠올린다. 서산스님이 세상을 떠나자 제자 편양스님은 스승의 비문을 이정구에게 청해서 내금강 백화사에 세웠는데 나중에 편양스님이 세상을 떠나자 이정구의 아들 이명환이 그의 비명을 써서 백화사에 나란히 세웠다.

2년전 북한방문 중 내금강 백화도량 옛터에서 그

세상이 다 헛되다하나

다시 돌이켜보면

生生不息으로

헛된 것 하나도 없다


비 돌을 보았다.

아마도 그런 시절에는 자연으로서의 철과 인간으로서의 철이 제대로 운행되어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이 고스란히 사람의 벗에도 제 철을 맞이했던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 스승과 제자로도 이어지던 것이다.

지금은 지난 겨울과 올 봄이 따로따로인 듯하다. 사람도 어제가 없는 오늘날의 그것인 듯하다. 내 진정한 내면은 우리나라 네 계절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무서워하고 또 기뻐한다.

겨우내 견디어내며
살아남은 놈들만이
봄맞이 꽃 한송이로
활짝 피어나는 것이다

나는 서울 나들이가 없는 날 일손을 잠시 놓고 일어서서 창 밖을 내다보는 것을 버릇으로 삼고 있다. 옛 시나 요사이의 어느 시 중에 문을 열지 않아도 밖에 눈 내리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그럴듯한 정취를 내가 흉내내는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이제 나는 그런 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문이 있다는 것은 그 문을 열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일을 뜻한다. 그런 문을 닫아둔 그대로 밖의 일을 다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은 종류이외 어떤지 헛된 종류쯤이 되는 듯하다.
일손과 일손이 이어질 필요가 없다면 내 발로 나



벼락처럼 단번에 자르는 지혜의 완성!

The Book of The Books
법구경 I·II

오소 리즈니쉬 강의 손민규 옮김 전2권 각권 값 10,000원

The Diamond Sutra
금강경

오소 리즈니쉬 강의 손민규 옮김 값 10,000원

The Heart Sutra
반야심경

오소 리즈니쉬 강의 손민규 옮김 값 10,000원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니,
우리는 마음을 통해 세상을 만든다.**

오소의 법구경 강의는 방금 전져 울린 물고기처럼 생동감이 넘친다. 불교의 경전을 넘어서서 참다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소중하기 이를 데 없는 진리의 선물이자.

**그대는 오직 의식하는 만큼만 존재하리라.
의식은 그대를 깨어 있게 한다.**

이 진언은 '그대 안에 잠들어 있는 붓다'를 흔들어 깨달음의 땅에 이르게 한다. 우리는 여기 금강에서 가장 높고 웅으며 완벽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냥 존재하라. 삶이 춤추도록 놓아두라!
이것이 진리가 찾아 오는 유일한 길이다.**

집착과 소유를 버려라! 삶의 덧없음에 명상하라! 그대가 무(無)안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날, 모든 붓다들이 그대를 환영하고, 열반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21세기를 사는 지혜의 서

01. 탄트라 秘典 I	05. 법구경 I	09. 탄트라 더없는 깨달음	13.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	17. 오직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을 뿐 조주	21. 내 사랑 인디아
02. 탄트라 秘典 II	06. 법구경 II	10. 신우도	14.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I	18. 달빈 가슴을 넘어서 남진	22. 소중한 비밀 까비르 강론
03. 탄트라 秘典 III	07. 금강경	11. 신성령	15. 轉된 거울에 담긴 노래 마조	19. 법의 연꽃 이규	23. 명상, 처음이자 마지막 자유
04. 탄트라 秘典 IV	08. 반야심경	12. 허안 연꽃(대만)에서 강론	16. 마음을 버려라 임재	20. 轉의 최고봉 백경래 대주	24. 사랑의 붓다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 색의 책은 출간 준비중입니다.
* 책 제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mail: taelpub@chollian.net
tel. 927-2831-4 fax. 924-3236

태인출판사